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VARK 학습양식의 차이

조옥희<sup>1</sup>, 윤정은<sup>2\*</sup>

<sup>1</sup>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IMS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VARK 학습양식의 차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노인 집단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에 따른 학습 이질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특성에 기반한 개인맞춤형 교육 전략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행위 실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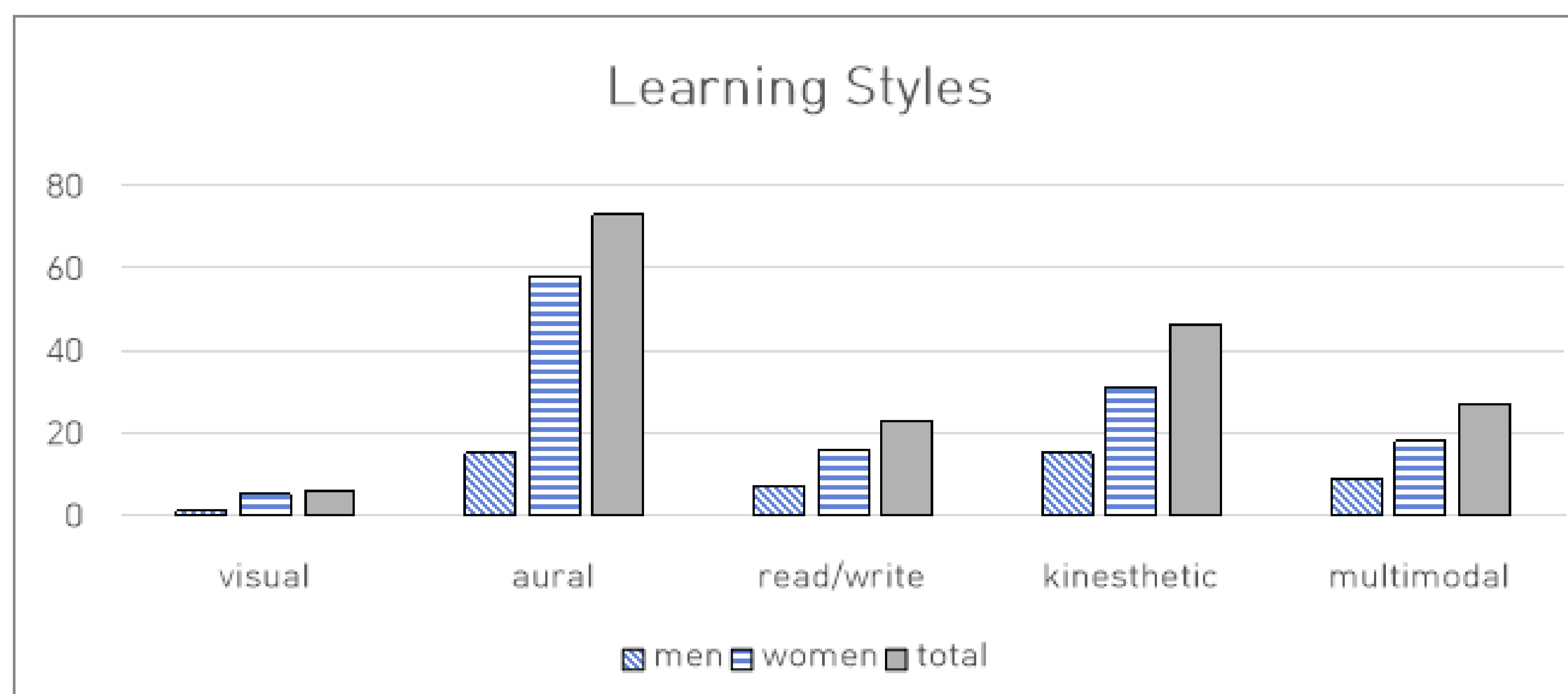
##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서 편의표집하였다. 최종 175명 대상자의 설문지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습양식 검사는 VARK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Fleming이 개발한 VARK 검사지 7.0 한국어판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4개의 보기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중목 응답이 가능하고, 선호하는 답변이 없다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한 내용을 다시 시각적(Visual), 청각적(Aural), 읽기/쓰기(Read, Write), 운동감각적(Kinesthetic)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 특정 유형과 다른 유형의 응답 수를 분석하여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공식에 따라 우세여부를 판단한다. 단일형은 시각적(Visual), 청각적(Aural), 읽기/쓰기(Read, Write), 운동감각적(Kinesthetic) 중 하나로 결과가 나오고, 연합형은 VARK 요소 중 2개, 3개, 4개 모드가 조합된 형태로 분류한다.

## RESULTS

대상자 중 단일형은 148명(84.6%)였으며, 연합형은 27명(15.4%)였다. 단일형 중 시각적(Visual) 6명(3.4%), 청각적(Aural) 73명(41.7%), 읽기/쓰기(Read, Write) 23명(13.1%), 운동감각적(Kinesthetic) 46명(26.3%)였으며, 연합형 중 2개인 대상자는 23명(13.1%), 3개인 대상자는 3명(2.8%), 4개인 대상자는 1명(0.6%)였다.

남성과 여성 노인 모두 단일형의 학습양식을 더 많은 비율로 선호하였다( $p=.409$ ). 65-70세 노인 중 56명(81.6%), 70-75세 노인 중 51명(87.9%), 76세 이상 노인 중 41명(85.4%)이 단일형의 학습양식을 선호하였다( $p=.565$ ).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상에 따라 학습양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495$ ). 직업이 있는 대상자 중 16명(19.1%)이 직업이 없는 대상자 11명(12.1%)에 비해 연합형의 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203$ ). 그러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p=.002$ ), 경제상태가 '상'인 대상자의 66.7%가 연합형을 선호한 반면, '하'인 대상자는 10.6%가 연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학습양식의 선호도 차이는 없었다( $p=.255$ ).



##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연합형보다 단일형 학습양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청각형 학습양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청각적 요소를 강화한 개인맞춤형 교육 전략의 적용이 필요하다.